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2016년 10월 1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04일(화) : 주간회의(11시)
- 10월 05일(水)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노사 기정진 연보(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2호)
- 10월 06일(木) : 연구원 운영위원회(오후 5시)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최제학 습재실기(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10월 07일(金) : 법인업무보고, 협약식(서울항일영상재단)

### ■ 연구원 행사 안내

####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연구원 소모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인자요산(仁者樂山)' 에서 전북권에 있는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10월 15일(토)**에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잊고 선선해지는 가을 산행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미리 연락주시면 됩니다.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장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



<망해사 낙조 바라보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다가 될 수 없는 슬픈 호수>

김제·만경평야를 이 동네 말로 '징계 맹경 외애밋들' 이라고 한다. 김제 만경의 너른 들을 일컫는 말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절' 망해사(望海寺).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김제시 만경읍을 거쳐 진봉면으로 가는 그 길은 들판 가운데로 나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정점, 만경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이다.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광활면이 인접해 있는 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수명을 다한 심포항 인근에 다다른다. 그 길이 산자락으로 향하며 야트막한 구릉 사이로 망해사가 나타난다.

망해사는 작은 절이다. 전각이라 해 봐야 주불전인 극락전과 낙서전(樂西殿), 종각, 그리고 요사가 전부다. 하지만 참으로 절다운 절이다. 그 절다운은 낙서전(樂西殿)으로 하여 선명해진다. '해지는 서쪽을 기꺼워한다' 는 이 소박함 앞에 사뭇 경건함을 느끼게 된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망해사는 더 이상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 아니다. 이제는 바다가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절이 되고 말았다.

망해사가 등을 기대고 있는 진봉산은 구릉에 가깝다. 해발고도라 해봐야 72m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산기슭의 우람한 소나무들이 워낙 울창하여 깊은 산처럼 느껴진다. 진봉산은 예로부터 대단한 산이었다. 대동여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경현 조에 진봉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진봉면의 이름도 이 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동진강 방조제를 쌓아 만든 광활면 간척지가 일본인들의 수탈 행위였다면, 21세기의 새만금 방조제는 문명의 수탈이다. 망해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후대의 사가들은 문명의 독으로 막힌 새만금의 바다에서 21세기의 비극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나마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물을 가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의 끝없는 생명력에 희망을 걸어 본다.

## ■ 연구원 소식

###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9월 28일(水)에는 '호남인물 읽기'의 일환으로 『노사 기정진 연보』를, 29일(木)에는 '전북의병사료 읽기'의 일환으로 최제학의 『습재실기』를 교재로 하여,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의를 연구원 201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 목 18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호남인물 읽기>



<전북지역 의병사료 읽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변은진 교수 방문

: 지난 2016년 9월 29일(목)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변은진 교수가 방문해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이 진행 중인 사업과 전반적 내용, 연구원 공간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변은진 교수는 향후 연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약속하셨습니다.



## ○ 왕기석 명창 공연 관람

: 2016년 9월 30일(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의 판소리 다섯 바탕 심청가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공연은 1,800석 전석매진이었는데,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34인이 관람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공연관람을 힘써 주신 왕기석 이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옛 시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 품

#### 淸平調詞(第1首)

#### 청평조사(제1수)

|                  |                                 |
|------------------|---------------------------------|
| 雲想衣裳花想容(운상의상화상용) | 구름 보면 열두폭 치마인 양 꽃을 보면 고운 님의 얼굴로 |
| 春風拂檻露華濃(춘풍불함로화농) | 봄바람이 난간 스치자 이슬 꽃이 농염하니,         |
| 若非群玉山頭見(약비군옥산두견) | 만에 하나 곤륜산 꼭대기에서 볼 수가 없다 하면      |
| 會向瑤臺月下逢(회향요대월하봉) | 모름지기 요대에 찾아가야 달밤에나 만날 수가 있으리.   |

###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 감 상

- 구름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립고 보고픈 양귀비의 치마폭인 듯, 꽃을 마주하면 곱디고운 그녀의 얼굴인 듯 사랑에 푹 빠진 현종의 시선이다. 무얼 보아도 그녀가 그립고 애달픈데, 하물며 꽃중의 꽃이라는 '화왕(花王)' 모란을 바라봄에서랴! 봄바람 스치는 난간에 서린 처연한 이슬 꽃은 짧은 청춘의 찰나에 지고 말 안타깝게 고운 양귀비의 얼굴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으려나? 신녀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곤륜산(崑崙山)의 꼭대기에 찾아가야 볼 수 있으려나? 그것도 아니라면, 신선세계에 자리했다는 요대의 선녀에게 찾아가야 반드시 볼 수 있으리라. 가슴이 시리고 아프도록 어여쁜 양귀비를 바라보는 현종의 애절한 시선이다.

## ■ 역사속의 오늘

민인의 단식, 그리고 조작된 죽음- 1982년 10월 12일



<비공개 단식을 진행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바야흐로 단식의 시대인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비공개 ‘특별인’(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했으니) 단식” 을 진행하고 있다. 연행과 구속, 죽음에 대항한 점거와 농성, 삭발과 단식이 일상의 언어로 난무하던 시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현수막을 들고 유인물을 뿌리고 앞선 이들은 삭발을 하고, 이것 저것 해도 해도 안 되면 단식을 했다.

독재 권력 시기 술한 재야단체 인사들과 야당 지도부가 단식을 진행했고 구보다 수십·수백 곱절의 민인들이 곡기를 끊고 불의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했다. 그 시기 그러한 흐름은 습관의 관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대한 수직 절벽 같은 권력 앞에서 민인이 살아서 저항하는 마지막 선택지였다.

### “불의에 집착한 단식”

우리 현대사에서 보수 인사들의 단식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1995년 12월에 5·18특별법으로 구속 수감된 전두환씨가 “5공화국의 정통성을 지키겠다” 며 28일에 걸쳐 2003년 11월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정권의 특검 거부”에 항의하며 10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더 솔한 보수 인사들이 있지만 2016년 비공개 특별인 “단식 투쟁”을 진행하는 여당 대표의 이름값에 어울리는 인사들이 이들이다.

부당한 권력에 항거했던 민인들의 단식은 제 몸을 사위어가면서 외치지 않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대에서 살아서 선택할 마지막 지점이었지만 이들의 “단식투쟁”은 늘 “단식투정”이라는 비아냥에 직면해야 했다. 사회적 약자의 ‘목숨을 건 투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들이 ‘단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막다른 처지’를 호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기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 절차 속에서 “갑”의 위치에 서있는 이가 벌이는 단식은 그래서 늘 저자거리의 안주로 진상되곤 했다. 2016년 9월 26일 단식을 시작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한 민인들의 시선 역시 전두환, 최병렬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항의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단식을 선택했고 한국 정당사에서 유래없이 집권여당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불의에 저항한 단식”

32년 전 오늘,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단식과 죽음.

그는 1980년 5월 16일 밤,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모인 수만의 인파 앞에서 들불보다 뜨거운 사자후를 토해낸다.

“학생. 시민 여러분! 민주화를 성취하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출발 선상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민주화의 성스런 횃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검거되고 재판받을 때 당시 신문은 그의 죄(?)를 이렇게 보도했다.

‘광주 지법 형사 합의 2부 (재판장 강현중판사)는 27일 오후, 광주 사태 주동자 박관현 피고인(30세.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계엄법 위반 죄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82년 9월 28일자 동아일보)

그는 내란중요임무중사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모진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 광주교도소에서 5·18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0여 일간 단식을 벌이다 죽음이 임박하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곧 숨을 놓았다. 전남대 병원 봉쇄에 나선 경찰병력(2016년 서울대 병원과의 기시감...)이 영안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저항하는 부모·형제·동료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면서 시신을 빼앗아갔다. 당시 시신을 지키는 사람은 40여 명이었고, 경찰은 사복을 포함하여 600여 명이였다. 자정을 넘기기가 무섭게 부검은 한사람의 유족도 없이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13년 후 감옥에서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외치게 될 전두환은 그의 죽음 앞에 "심근경색증에 의한 순환장애"라는 사인을 기록했다. 뒤이어 검찰은 부검 결과 '자연사' 임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며 장단을 맞췄지만 당시 로이터 통신은 '40일간 단식하다가 사망했다' 고 전했다.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었던 광주항쟁의 진상과 폭압적인 교도소 내 실태를 목숨을 건 단식으로 알리고 숨을 놓았지만 죽음이 올곧게 밝혀지기까지 수십 년이 필요했다.



**<1980년 전남대에서 연설하고 있는 박관현>**

2016년 집권 여당 대표가 "비공개 특별인" 단식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9월 25일, 2015년 11월 14일 "쌀값 인상 대선 공약 이행" 을 촉구하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지 316일만에 농민 백남기씨가 숨을 놓았다.

그의 사인은 "급성신부전" 에 의한 병사로 기록되었다.

**불의의 시대를 온 몸으로 관통했던 박관현와 백남기 두 민인의 명복을 빈다.....**

## ■ 도농상생



우리 연구원 이정욱 평의원(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의 고향이 전북 순창군 북흥면입니다. 어머니께서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꾼 오미자가 빨간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1kg당 9,000원입니다. 5kg 이상 주문부터는 택배비 무료입니다.

지난 회원의 날에 박애스더 회원께서는 지난 해 담근 오미자 엑기스를 후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엑기스, 효소, 담금주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몸에 좋은 오미자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